

# 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41분 ~ 11시 47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(2042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38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  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  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\*\*\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1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직원 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남자 1 : 예, 과장님.

오상권 : 지금 교통계장 빨리 바꿔봐.

남자 1 : 상황실 내려갔습니다. 상황실 지금.

오상권 : 그리고 인천 저기 여객선 운항관리실 전화해가지고 오늘 세월호 몇 시에 출항했는지 몇 명 탔는지 빨리 한번 확인해 봐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2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 / 본청 상황실 / 콜센터 / 본청 교통계

콜센터 : 감사합니다.

오상권 : 인천상황실이죠?

콜센터 : 예. 인천상황실 연결할게요.

오상권 : 예. (통화연결음)

남자 1 : 예.

오상권 : 여보세요? 나 본청 안전과장인데, 거기 교통계장 있는가?

남자 1 :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

오상권 : 오늘 거기 몇 명 탔어, 거기 배?

남자 1 : 지금 450명 탔다 그러니까.

오상권 : 그다음에 몇 시에 출항했지?

남자 1 : 어제 21시경에 출발했습니다.

오상권 : 승무원까지... 알겠어요.

남자 1 : 예, 예.

오상권 : 그리고 교통계 몇 번인가... (전화 끊김)

(통화연결음)

콜센터 : 예. 감사합니다.

오상권 : 예. 인천 교통계요.

콜센터 : 예.

남자 2 : 예. 교통계 경장 김\*\*입니다.



오상권 : 본청 안전과장인데.

남자 2 : 예. 안녕하세요?

오상권 : 오늘 그 탄 거 몇 명 탔나?

남자 2 : 지금 450명 탔습니다.

오상권 : 정확하게 450명 맞아?

남자 2 : 예.

오상권 : 승선원은 24명.

남자 2 : 승객 450명 탄 것만 먼저 확인했습니다.

오상권 : 그다음에 어제 21시에 출항해가지고 원래 오늘 몇 시 도착이가?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4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 / 운항관리실

남자 1 : 예. 운항관리실입니다.

오상권 : 예.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인데요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

오상권 : 지금 세월호 상태 어떤지 알고 있어요?

남자 1 : 저희도 지금 계속 파악 중입니다. 지금 기울어져 있고 퇴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,

오상권 : 거기 몇 명 탔나?

남자 1 : 지금 450명으로 현재 보고 들어왔고요.

오상권 : 승선원 24명.

남자 1 : 예. 정확한 인원 다시 파악 중입니다.

오상권 : 지금 파악 중이고?

남자 1 : 예, 예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지금 목포 해경에서 빨리 출동 나가서,

오상권 : 아, 지금 가고 있어. 알겠어.

남자 1 : 도착이 언제 할지 저희도 그것 좀 빨리...

오상권 : 예.

남자 1 :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.

오상권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6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 / 본청 콜센터

콜센터 : 해양경찰입니다.

오상권 : 예. 진도VTS 좀 부탁할게요.

콜센터 : 예. (통화연결음)

여보세요?

오상권 : 예.

콜센터 : 신호가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.

오상권 : 몇 번입니까?

콜센터 : 061.

오상권 : 예?

콜센터 : 061. 아, 일반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

오상권 : 예.

콜센터 : 061-288-2249번이요.

오상권 : 알겠습니다.

콜센터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8분 1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 / 본청 콜센터

콜센터 : 예. 감사합니다.

오상권 : 예. 진도VTS 좀 다시 부탁할게요.

콜센터 : 아, 예, 잠시만요. (통화연결음)

지금 그쪽은 먹통식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, 과장님.

오상권 : 알겠습니다.

콜센터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7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/ 청와대 파견직원

임근조 : 예, 임근조입니다.

남자 1 : 과장님, 청와대 나와 있는 이원준입니다.

임근조 : 여보세요? 여보세요?

남자 1 : 청와대 나와 있는 이원준입니다.

임근조 : 큰소리로 얘기하세요.

남자 1 : BH 나와 있는 이원준입니다.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예.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? 그 사건 사람 구조가 다 될 것 같습니까?

임근조 : 지금 구조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남자 1 : 다 될 것 같습니까?

임근조 : 다 시켜야죠.

남자 1 : 아, 다 될 것 같아요?

임근조 : 예.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임근조 : 예.

*(continued)*





◆ 녹음 순번 : #0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0분 5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최재욱 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최재욱 : 예. 최재욱 경사입니다.

오상권 : 어, 난데, 나중에 점검은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, 출항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보냈는지. 원래 여객 안전관리하게 돼 있잖아. 그렇지?

최재욱 : 예, 그렇습니다.

오상권 : 그런 거 그냥 은밀하게 한번 해놓고 우리 얼마나 안전점검 주기하고 이런 거 다 한번 파악 좀 해놔.

최재욱 : 예, 알겠습니다.

오상권 : 응.

최재욱 : 예.



- ◆ 녹음 순번 : #08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 38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윤해진 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윤해진 : 안전관리 윤해진 경사입니다.

오상권 : 어. 아..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정지현 / 본청 해상안전과 최재욱 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정지현 : 감사합니다. 교통계 정지현입니다.

오상권 : 여객선 제원 있죠?

정지현 : 예.

오상권 : 제원 한번 불러 봐요. 근현 얼마예요, 홀수?

정지현 : 예?

오상권 : 홀수.

정지현 : 홀수요?

오상권 : 홀수, 홀수.

정지현 : 아, 6825요. 잠깐만요.

최재욱 : 예. 최재욱 경사입니다.

오상권 : 빨리 제원표 가지고 내려와 봐.

최재욱 : 예.

오상권 : 그리고 야, 왜 인원이 달라,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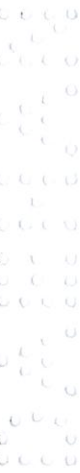
최재욱 : 저희가 450명 승선한 거하고요. 승선원 24명 해서 474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  
거든요.

오상권 : 야,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.

최재욱 : 저희가 운항관리실에 확인하니까 450명 맞습니다, 승선원이.

오상권 : 알았다.

최재욱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정지현 / 본청 해상안전과 교통계장 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정지현 : 감사합니다. 교통계 정 경사입니다.

오상권 : 교통계장 거기 없어요?

정지현 : 계십니다.

오상권 : 아니, 거기 있으면 어떡해. 잠깐 좀 바꿔줘 봐요. 바꿔줘 봐.

정지현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과장님.

오상권 : 아, 거기 있으면 어떡해. 제원표..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우리 과 소관의 제원하고 승객 정확하게 확인한 거 맞죠?

남자 1 : 예, 맞습니다. 맞고,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이거 지금 승선객 몇 명 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런데 단원고 학생들 나왔고 일반인들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. 조금 이따가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내려갈랍니다.

오상권 : 그리고 선박제원표 있어요, 상세 제원?

남자 1 : 예, 예, 있습니다.

오상권 : 건현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?

남자 1 : 예, 예. 요거 파악해가지고,

오상권 : 그러면 갖다 주든지, 하나를. 지금 전실에 찾고 난리인데.

남자 1 :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, 힘들다니까요.

오상권 : 인천서에 그게 있어, 전부 다.

남자 1 : 예. 그러니까요. 그거 지금 파악해서 갖고 내려갈 겁니다, 지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4분 0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해상안전과 계장/ 본청 해상안전과장 오상권

남자 1 : 예.

오상권 : 지금 좀 이따가 기자 브리핑 할 건데 정확한 인원이 빨리 나와야 돼요.

남자 1 : 정확하게 인원은 정확하게 450 맞습니다.

오상권 : 그다음에 해기사 24명하고?

남자 1 : 예, 예, 승조원 24명 있고,

오상권 : 그런데 왜 KBS 이런 데는 다 472로 나와, 계속?

남자 1 : 472로 나와요?

오상권 :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, 자꾸.

남자 1 : 474명입니다.

오상권 : 해운조합 거 받은 거죠?

남자 1 : 예, 예.

오상권 : 명부도 다 받았지?

남자 1 : 450명. 예, 예, 맞습니다.

오상권 : 아, 명부도 받았냐고?

남자 1 : 명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학생만 나오고 일반인이 안 나오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. 빨리 도착하고 있습니다, 그거. 나오는 대로 바로 가지고 내려갈랍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7분 53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목포상황실장입니다.

이춘재 : 경비국장이네요.

남자 1 : 예, 안녕하십니까?

이춘재 : 서장 지금 어디, 3009에 있어요?

남자 1 : 예, 그렇습니다.

이춘재 : 서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?

남자 1 : 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.

이춘재 : 헬기는? 헬기를 동원할 헬기가 있냐고?

남자 1 : 모든 지금 헬기 다 현장으로 도착해 있습니다.

이춘재 : 아니, 말고. 목포서장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?

남자 1 : 예.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

이춘재 : 어. 헬기 하나 보내갖고 서장 현장으로 돌려보내요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8분 57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임근조 : 예. 서해청장님 계십니까?

남자 1 : 예?

임근조 : 서해청장님이요.

남자 1 : 예, 예.

임근조 : 예. 차장님 통화 좀 하고 싶어 합니다.

남자 1 : 차장님이요?

임근조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될까요?

임근조 : 본청 2042요.

남자 1 : 2042요?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예. 차장님이요.

임근조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0분 3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/ 서해청장 김수현 / 본청 차장 최상환

임근조 : 예. 감사합니다. 임근조입니다.

김수현 : 여보세요?

임근조 : 예. 잠깐만요.

최상환 : 여보세요?

김수현 : 예, 차장님, 접니다.

최상환 : 예. 지금 현장에 헬기에서 구조사가 1명이 구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  
입니다만, 일단 여객선에 내려서 여객선이 지금 얼마만큼 기울어졌고 일단은 무  
조건 물에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든지 아니면 나올 때 순서대로 나온다든지 이렇  
게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, 현장에서.

김수현 :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는데요. 차장님, 이게 있더라고요. 일부 박준영이라는  
승객이 전화 신고가 왔는데 선내에 물이 잠겨가지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 
고 이렇게 지금 전화 온 걸로 봐서 이게 자연적으로 60도 내지 70도 기울니까  
그 압력에 의해서 수압 같은 걸로 인해서 물이 딱 밀어서 잠겨서 안 되기 때문  
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저절 더 이상 침수가 안 되고 배를 세울 수 있는 방법  
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.

최상환 : 그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. 우선은,

김수현 : 현재는 방법이 없는데,

최상환 : 그러니까 우선은 뭘 가서 뭘 부수든지 뭐든지 해서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사람  
이 갑판으로 일단 나오게 해서 물에 뛰어내리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. 육상하

고 불과 1.8마일밖에 안 떨어졌고 물이 잔잔하고 주변에 어선들이 많고 우리가 구명보트를 많이 투하해 났으니까 일단은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쪽에서 헬기로 한두 명 구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헬기 구조사 중에 일단은 거기 내려가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, 나올 수 있도록.

김수현 : 예, 알겠습니다.

최상환 : 어떤 형태로든 그게 제일 급하고, 거기 먼저 내려가 그 위험 속에서 구조한 놈은 나중에 정말 공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누구 특정인을 딱 찍어가 무조건 거기 좀 내려가 현장 상황을 계속 좀 알려주라 하세요. 그게 제일 급합니다.

김수현 : 예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.

최상환 : 예. 그리고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.

김수현 : 예.

최상환 : 그것 좀 하여튼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. 지금 계속해도 안 되니까.

김수현 : 예, 알겠습니다.

최상환 : 예, 예.

김수현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7분 30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장 / 본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/ 서해청 상황담당관 유연식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이춘재 : 예. 경비국장인데 상황담당관 있어요?

남자 1 : 예. 잠깐만요.

유연식 : 예, 상황담당관입니다.

이춘재 : 예. 지금 여객선에 우리 항공구조단이 못 내려갑니까?

유연식 : 아직 못 내리고 앞에 선수만 남아 있나 본데, 지금은 내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.

이춘재 : 그러니까 진작 좀 내려서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, 못 올라가면. 우리가 올라가 갖고 유도한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.

유연식 : 지시는 해 났는데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이춘재 : 지금 저기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, 배에서?

유연식 : 예. 그런데 지금 119에서 학생 하나가 안 나왔다고 119 쪽으로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

이춘재 :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나왔다는 얘기에요? 선내에는 없다는 이야기에요?

유연식 : 예. 그전부터 계속 기울어지면서부터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전화는 한번 받았다고.

이춘재 : 한 군데 받았다고요?

유연식 : 예.



이춘재 : 그러면 선내에 일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?

유연식 : 예, 예.

이춘재 : 그리고 지금 현장에 동원된 세력이 지금 민간어선이 몇 척 정도 되는 거예요?

유연식 :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,

이춘재 : 대충.

유연식 : 주변에 6척이 와 있었고요, 상선도 2척이 있었고, 지금 우리 경비정도 있고 그렇습니다.

이춘재 : 해군도 또 거기 온 것 같은데?

유연식 : 예, 해군도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해군도 8척 도착했습니다.

이춘재 : 아니, 그러니까 구조세력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우리한테 전화를 한번 해 주세요.

유연식 : 예, 알겠습니다.

이춘재 : 예.

유연식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0분 1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/ 남자 1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\*\*인데요.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다 이선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.

임근조 : 지금 안에 몇 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 중에 있는데,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배 안에 남아 있답니까?

임근조 : 아직 그게 거의 다 나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, 혹시 몇 명이 남아 있는지 그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그런데 배가 전복된 것 같던데요.

임근조 : 예. 지금 거의 침몰한 걸로 지금...

남자 1 : 선미가 보이는... 아니, 선체 바닥이 그림에 나오는데.

임근조 : 예. 지금 조금 전에 TRS로 연락 오기는 거의 침몰한 걸로 지금 하거든요.

남자 1 : 그러면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까?

임근조 : 예. 아까 얘기로는 4m, 10m 정도 남기고 다 잠긴 걸로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심각하게 더 나빠진 걸로 돼 있어요.

남자 1 :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면 선미 선체 바닥이 하얀 부분이 공중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, 그걸로 봐서는 침몰이 아니고 전복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, 지금요. 그거 옛날 그림인가?

임근조 : 예. 그건 벌써 지금 구 정보가 됐어요, 그건.



남자 1 : 아, 알겠습니다. 침몰돼버린, 완전 배가 사라져버린 겁니까, 완전히?

임근조 : 지금 선원들... 기다려 보세요. (TRS 무전 내용을 들으면서) 자꾸 끊기네. 학생들이  
이 다수 있는 절로,

남자 1 : TRS에 그렇게 나오네요.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그러면 발전기 전원 끊어버렸으면 침몰하겠네, 보니까 지금요.

임근조 : 4m, 10m 수면에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.

남자 1 : 그렇죠? 그러니까 전복돼 있는 상태 같은데, 뒤집어져가지고요.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임근조 : 지금 그림 보이면... 보이죠, 그림? 아, 우리 지금 저기로 보이는데, 우리 ENG 영  
상으로 보이는데.

남자 1 : 그거 어떻게 나오니까, ENG 영상이?

임근조 : 지금 하얗게 선수 쪽인 것 같은데. 선수 쪽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선수요?

임근조 : 예, 예.

남자 1 : 아, 그러면 배가 지금 다 들어왔네요?

임근조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

임근조 : 예. 일단은 장관님 이리로 오시니까.

남자 1 : 예. 들어오시는가요?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예, 알았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 55초

◆ 대 화 자 : 동아일보 기자 황금천 /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

황금천 : 여보세요?

임근조 : 여보세요?

황금천 : 임근조 과장 안 계세요?

임근조 : 예, 접니다.

황금천 : 과장님, 황금천이에요. 동아일보.

임근조 : 아, 예.

황금천 : 지금 상황이 어때요?

임근조 : 지금 저희 ENG카메라로 보면 거의 지금 침몰 직전에 있고,

황금천 : 승객은 몇 명이나 구조됐어요?

임근조 : 승객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.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.

황금천 : 지금 웬만큼 됐어요? 몇 프로 정도 구조됐어요?

임근조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지금 약 100여 명으로 지금 일단 확실하게,

황금천 : 아이고,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?

임근조 : 지금 계속 구조 중에 있습니다.

황금천 : 인명피해 날 것 같아요?

임근조 : 선내 인원이 지금 확인 안 돼가지고 아마 선내에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조심스럽습니다, 지금.

황금천 : 아, 그래요?

임근조 : 예, 예.

황금천 : 위험할 수도 있네?

임근조 : 예, 예.

황금천 : 아이고, 알았어요, 알았어요.

임근조 : 예.

황금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2분 4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/ 본청 대변인실 / 본청 전략사업과장 윤성현

임근조 : 감사합니다. 임근조입니다.

남자 1 : 예. 해경청 대변인실 \*\*입니다.

임근조 : 어디? 대변인실?

남자 1 : 예. 해경청 상황실입니까?

임근조 : 응. 왜?

윤성현 : 아, 본청에 전략사업과장입니다.

임근조 : 아, 예. 과장님, 저 임근조입니다.

윤성현 : 아, 임 과장님이 받았어요?

임근조 : 예. 여기 지금 상황실입니다, 여기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1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/ 남자 1

임근조 : 감사합니다. 임근조입니다.

남자 1 : 예. 과장님, 교육원 \*\* 팀장입니다.

임근조 : 교육원이요?

남자 1 : 예. 그런데 오늘 안행부 장관님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여기 \*\*센터에 같이 오셨는데요.

임근조 : 예.

남자 1 : 안행부 장관님이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가신다는데.

임근조 : 아, 뭐 타고 가신다고요?

남자 1 : 여기 있는 헬기를 가지고 현장으로, 거기 원장님,

임근조 : 아, 경찰청 헬기 가지고?

남자 1 : 예.

임근조 : 예. 그러면 몇 시 출발입니까?

남자 1 : 현장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.

임근조 : 현장으로 바로 가십니까?

남자 1 : 예. 아마 장관님이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시거든요. 언제쯤일지는 몰라도.

임근조 : 예. 그러면 일단은 사고 현장이 제일 가까운 데가 진도거든요. 그런데 목포서로 가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, 일단은. 목포서가 저기 관할이니까.

남자 1 : 근데 목포서장님이 지금 3009함에, 현장에 나가계신다고...

임근조 : 그러면 그 3009함에 내릴 수 있나?

남자 1 : 그거 되면 바로 3009함에 브리핑 가능하면 장관님 모시고 3009함 가는 것도,

임근조 : 3009함에 그게 내릴 수 있으면, 헬기가 내릴 수 있으면 3009함으로 바로 가면  
되죠. 근데... 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9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 박정섭 / 본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/ 목포서 상황담당관 조형곤

박정섭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경사 박정섭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.

이춘재 : 예. 경비국장입니다.

박정섭 : 예, 국장님.

이춘재 : 담당관 좀 바꿔주세요.

박정섭 : 예. 담당관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 잠깐 바꿔드리겠습니다.

조형곤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

이춘재 : 예. 지금 현장에서 보고가 거의 안 들어오는데, 한 군데 좀 지정을 해 갖고 계속 TRS 보고를 시켜 줘야지. 현재 구조 통계가 어떻게 됐습니까?

조형곤 : 지금 현재 180..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161명입니다.

이춘재 : 그걸 좀 계속 메신저에 올려달라니까. 그럼 전화를 안 하지.

조형곤 : 예, 예.

이춘재 : 파악 되는 대로 좀 올려주라고요. 어디에서 몇 명, 몇 명 해 갖고. 그 인원에 어선 포함 됐어요, 안 됐어요?

조형곤 : 그건 파악 아직 안 된 겁니다.

이춘재 : 그러면 어선 미포함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요.

조형곤 : 예, 예, 알겠습니다.

이춘재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1분 37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 / 남자 2

남자 1 : 예, 과장님.

남자 2 : 목포 안전과하고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어선들 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. 이런  
거는 정확하게 다 까가지고 한 군데로 일단 밀집하면 제일 좋고. 어?

남자 1 : 예. 일단 서거차 것은 일단 명단 내려보내가지고 대조하고 있고요.

남자 2 : 전부 다 그 명단에서 대조 딱 하고 그분들 그거 하지 말고 파출소나 해가지고  
따뜻한 물도 제공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,

남자 1 : 그렇게... 예.

남자 2 : 목포서에서 정확하게 그 통계를 나중에 해야 돼.

남자 1 : 그건 통계를 잡되 상황실 통해서 일괄라인으로 보고하라고 해놨습니다, 지금 제  
가. 조치했습니다.

남자 2 : 그래. 그렇게 하고,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수색구조에 해가지고  
인근 어선에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다음에 여차하면 그 병원  
있잖아. 인근 병원들도 수배를 하든지 그 조언을 해 주라고.

남자 1 : 예. 서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파출소 직원까지 보내갖고 한 7명 정도 지금 투입  
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.

남자 2 : 그 사람들 어디 갔는가?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그 집에 보내면 안 돼.

남자 1 : 예. 거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쪽에... 섬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해요.

남자 2 :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배를 해 주고,

남자 1 : 하고 있습니다, 그렇게.

남자 2 : 좀 그런 것들을 하여튼 목포하고 협의 좀 해봐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 예.

남자 2 : 그래.

남자 1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5분 5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박재형 / 일반인

남자 1 : Four Seven Four.

박재형 : Yeah, Four Seven Four.

남자 1 :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was \*\*

박재형 : Aa... currently we haven confirmed we haven confirmed. The reason of the \*\* thinking.

남자 1 : I see, I see. Any, any any report on that people was injured. injured people.

박재형 : Aa, Until so far no report of injured or casualty or death, no report at this point.

남자 1 : ok, yes. I understand. At last question. Where exactly \*\* happen \*\*

박재형 : Aaa... We didn' t confirmed exact that of the position but \*\* near, near the island, so we expect it' s not very deep.

남자 1 : o~k all right. and the island name is what?

박재형 : Aa, 진도 island 진도.

남자 1 : 진도 island.

박재형 : Yes.

남자 1 : ok. Thank very much. What is your name, please?

박재형 : My name is JaeHyeong, Park. \*\*

남자 1 : JaeHyeong, Park.

박재형 : Yes.

남자 1 : ok. If I have question, I can call you later.

박재형 : Aa. ok please but \*\* later.

남자 1 : I know I know Which number \*\*

박재형 : actually zero three two eight three five, two five nine four. You can find Park.

I will accept your call.

남자 1 : Thank very much.

박재형 : You' re welcome.

남자 1 : Good bye.

박재형 : Good bye.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9분 58초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이상수 /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

이상수 : 예. 감사합니다. 서해청 상황실입니다.

임근조 : 여보세요?

이상수 : 예.

임근조 : 예. 서해청 상황실이죠?

이상수 : 예. 어디십니까?

임근조 : 예. 본청 상황담당관인데요.

이상수 : 예. 안녕하십니까?

임근조 : 앞으로 2시간 후에 안행부 장관님이 현장 둘러보시고 서해청으로 내리실 겁니다.

이상수 : 2시간 후에 현장 가시고요?

임근조 : 현장에서 헬기로 한번 위에 둘러보시고 서해청으로 내려가실 겁니다.

이상수 : 예, 알겠습니다.

임근조 : 도착하시면 대응 좀 해 주십시오.

이상수 : 예, 알겠습니다.

임근조 : 예. 누구시죠?

이상수 : 이상수 경사입니다.

임근조 : 누구?

이상수 : 이상수 경사입니다.

임근조 : 이상수 경사. 예, 알겠습니다.

이상수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7분 47초

◆ 대 화 자 : 목포서 상황실장 / 본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/ 목포서 상황담당관 조형곤

남자 1 : 상황실장입니다.

이춘재 : 아, 경비국장이세요.

남자 1 : 예, 국장님.

이춘재 : 예. 담당관 좀 바꿔줘요.

조형곤 : 예. 상황담당관입니다. 여보세요?

이춘재 : 예.

조형곤 : 상황담당관입니다.

이춘재 : 예. 지금 배 안에 있을 것 같아요, 없을 것 같아요?

조형곤 : 그런데 배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.

이춘재 :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화면상에 보면 해상에 떠 있는 사람이 없네?

조형곤 : 없대요, 지금. 그래서 인원이,

이춘재 : 그럼 현재 구조된 인원이 다잖아요.

조형곤 : 예. 그리고 더 파악을 하고 있는데, 어디서 지금 한 200명이 나와 있는데, 지금 뭐 기운다 소리 하고 갑판상으로 다 나왔다고 했거든요.

이춘재 : 그런데 그걸 누가 아나? 123에서도 몰라요?

조형곤 : 123에서,

이춘재 : 아니, 구조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대충 알 건데?

조형곤 : 정확하게 지금... 아니, 선원... 선박 관계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되는





데.

이춘재 : 아니,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어딴니까, 서거차도에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.

조형곤 : 예, 예.

이춘재 : 그걸 해 갖고 확인을 해 봐야지.

조형곤 : 예, 알겠습니다.

이춘재 : 상황을.

조형곤 : 예, 예.

